

# 인월-금계 구간

## ■ 코스 지도

성찰과 상생의 길, 그리고 생명평화를 꿈꾸는 길



##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소개		
2	영월정	인월장터/영호남소통/영월정	민속자료
3	인월센터 건너편	소 먹이기/자라바위/고기잡고 놀던 추억	민속자료/생태
4	중군마을	임진왜란/마을유래	민속자료
5	수성대	덕두봉/장재골/소개된 마을 이야기	민속자료
6	배너미재	길의 유래/6.25의 전선	민속자료
7	장항마을	노루목/애기바위/귀농학교	민속자료
8	서어나무/묵담	극상림의 생태	생태
9	작은마을/작은학교	귀농 공동체	
10	실상사	유물유적/속설과 승천년속천년	민속자료/문화재
11	상황마을	황치/목기의 전승 이야기	민속자료/생태
12	등구재	삼봉산/백운산	생태/민속자료
13	창원마을	마을유래/닥종이/대학나무(호두)	민속자료/생태
14	금계마을	마을유래/천왕봉6.25와 홍수	생태/민속자료

## 1. 구간 소개

등산화, 편한 바지, 초코바, 그리고 물을 담은 작은 물통 하나.

이미 햇살이 제법 따스하긴 하지만 도톰한 점퍼도 잊지 않고 챙긴다. 노상 가방 속을 차지하고 있던 노트북, 타블렛, MP3 플레이어는 꺼내어 안전하게 방 안에 내려두고 대신 작은 수첩과 볼펜 한 자루를 준비한다.

홀로 떠나는 둘레길 도보여행. 거창한 욕심으로 채워져 있던 가방을 비우고 가벼운 마음만 준비한다. 부족한 것은 길이 마련해주리라, 도시의 이방인은 불안과 욕심을 내려놓는다.

목표를 향해 가열차게 달려달려 왔건만, 마음속에도, 생활 속에도 무언가 비어있다. 그게 뭘까? 답을 찾기 위해 떠난다.

풍경만 따진다면 지리산 둘레길보다 더 좋은 길도 많을 것이다. 지리산 둘레길은 숲길, 논둑길, 임도, 마을길이 함께 섞여 있다. 정상을 향해 세로로 오르지 않고 산뿌리를 따라 가로로 휘돌아 가는 길. 이렇게 '둘러가는 길' 이야말로 지금 내게 필요한 길이 아닐까.

지리산 자락의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을 걸으며 옛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하고, 지나치는 길손들이 던지는 한 마디 한 마디를 듣다보면 그 사이 어느 틈에선가 '나의 길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를 걸어본다.

다시 지리산을 향하는 시외버스 시간표를 확인한다.

## 2. 인월장

한적한 시골 중심가에 시끌벅적한 기운이 감돈다. 무슨 일일까? 이 일대에선 제법 큰 동네이긴 하지만 30분이면 넉넉히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법한 인월 중심가가 주차된 차들로 빼곡해 틈조차 보이지 않는다. 아, 두 손 가득 색색깔 비닐봉지며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이 지나시는 걸 보니 오늘이 장날인가 보다.

예상치 못했던 일정이지만 이런 귀한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장터로 들어선다. 아직 코끝에 달는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시골 장터는 벌써 봄기운으로 가득하다. 따스한 지리산의 햇빛을 받으며 큰 냉이, 다래, 두릅, 쑥. 보약이라 불려도 손색없을 봄나물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향기를 내뿜고 있다.

*“이게 뭐이 만원이고? 그냥 7천원에 도, 7천원.”*

분명 전라도 남원 땅인데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사이로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아, 그래서 인월장을 전라도의 화개장터라 부르는구나. 장보러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건을 팔러온 상인들도 절반쯤은 경상도 함양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란다. 삼국시대 때부터 백제와 신라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물물교환을 해왔다는 인월장에선 색다른 사투리들의 어울림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장터에 팔려고 내놓은 것들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겨우내 갈무리 됐던 녹두에서부터 동부, 서리태, 기장 같은 갖은 곡식들과 메주, 묵나물, 장아찌 같은 밑반찬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흐뭇하게 불러온다. 한쪽 구석엔 도시의 대형마트에선 볼 수 없는, 유난히 못생긴 곳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집에서 직접 말린 거여. 이거이 모양은 이래도 맛은 일품이랑 게.” 곳감 앞에 앉은 할머니는 이게 바로 호랑이도 놀라자빠진다는 인월장 할매표 곳감이라며 자랑을 늘어놓으신다.

할머니의 곳감 옆으로는 정육점들이 늘어서 있다. 작은 시골장에 유난히 정육점이 많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월의 특산물 토종흑돼지 덕분이란다. 산세 맑은 지리산 고지대에서 자라 육질이 연하고 기름도 적다는 흑돼지는 그 유명세 덕에 서울에서도 발품을 팔아 사러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살점 많은 삼겹살을 달라는 뜨내기 손님의 투정에 푸쭈깐 주인이 삼겹살을 내밀며 한 마디 한다. “흑돼지는 껍질 맛이여. 알아서 주는 거니께 모르면 그냥 갖고 가.” 이쯤되니 나도 그냥은 갈 수 없을 것 같다. 장터의 기분은 팔고 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던가. 작은 기념품을 마련한다. 봄햇살을 만만하게 보고 빠뜨린 준비물, 챙이 넓은 시장표 모자를 하나 장만한다. 쓰고 보니 그럭저럭 폼이 난다. 드디어 인월장의 일부가 된 듯해 왠지 뿌듯한 마음이다.

### 3. 인월센터 건너

인월면을 끼고 시원스레 흘러내리는 람천을 바라본다. 잔잔히 일렁이며 흘러가는 물길은, 한 걸음 한 걸음 돌레길을 내딛는 여행자의 모습을 닮아 있다.

*“저 왼쪽에 저게 자라바입니다.”*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등산모자를 빼딱하게 눌러 쓴 중년 남자가 곁에 와 서 있다. 자라바위라……. 자라의 등껍질을 닮아 그리 부르는 것일까? 남자는 강 한 가운데 볼록 하니 솟아오른 바위를 가리키며 말을 잇는다.

*“아침 10시나 11시쯤 되서 해가 제법 높이 솟아올랐다 싶으면 자라가 저 올라와 쉬거든요. 시간이랑 운대가 맞으면 저기서 지긋이 눈감고 일광욕하는 녀석들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 거 아셨습니까? 저쪽에 소가 풀 먹고 있는 거.”*

남자는 이번엔 오른편 풀밭을 가리킨다. 그리고 보니 정말 강과 맞닿은 조막만한 수풀에 고개를 처박고 열심히 입을 우물거리는 소 한 마리가 보인다.

*“저렇게 소를 풀어 맥이면 일부러 사료 안줘도 되고, 따로 풀 관리도 안해도 되거든요. 일석 이조지요.”*

도시 문물이 들어오면서 많은 것이 변해버린 인월 땅이지만 저렇게 소를 풀어먹이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라는 게 남자의 설명이다. 남자는 강 건너 돌레길 인월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며 뒤늦게 자신을 소개한다. 인월에서 나서 여전히 이 땅에 살며 시를 쓰다, 돌레길이 열리면서 돌레지기가 되었다는 남자. 람천변을 거니는 소의 느긋한 모습을 보고 섰던 남자가 문득 생각난 듯 열변 아닌 열변을 토한다.

*“여기저기 돌레길, 올레길 많이도 생겨났지요. 근데 왜 하필 요즘 길이 각광을 받는 걸까요? 걷는 거 옛날에 다 못 쓰는 거라고 버린 겁니다. 마을 길, 산길 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그 버려진 것이 다시 각광을 받는 걸까요? 그거 아마도 인간이고 싶다는 몸부림일 겁니다. 우린 걷는 걸 자동차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컴퓨터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듣는 것도, 냄새 맡는 것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도시에 있으면 온통 기계 소리만 들지요. 텔레비전, 자동차 소리, 스마트폰에 꽂아 놓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먹는 것도 거의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만 먹죠. 이런 기계, 인공을 떠나 본래의 인간이고 싶다는 몸부림이 자연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고, 걸음에 열광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봄볕에 발강게 상기된 남자의 옆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잊혀진 운율의 가치를 이어가고자 하는 시인의 몸부림이 돌레길을 지키는 돌레지기의 소명과 많이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는 간단한 작별인사를 남기고 걷기 시작한다. 나도 다시 걸음을 옮긴다. 걸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되리라. 도시에서는 잊고 있었던, 혹은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그러다 보면 이 길의 어디쯤에서 ‘진정한 사람다움’을 찾을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를 품으며 발걸음을 잇는다.

## 4. 중군마을

중군마을. 일대에 있던 자연마을 중에 유일하게 폐촌되지 않고 살아남은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나도 모르게 얼굴 가득 미소가 지어진다. 하얀 담벼락 가득 피어오른 꽃송이들 사이로 익살스러운 표정을 한 남자가 그려져 있다. 잣과 꿀을 손에 든 소탈한 농부의 모습이다. 주변의 마을들이 사라지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웃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이 중군마을을 지켜낸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담벼락을 따라 몇 걸음쯤 옮겼을까, 모퉁이 농가에서 밥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처마에 대롱대롱 달린 곳감들이 운치를 더해준다. 예상치 못했던 광경이 자아내는 시골마을의 정취에 취해 서성이는데 뻔뻔히 밖을 내다보시던 집주인 할머니가 뭔가를 들고 나오신다. 겨우내 얼려두었던 큼지막한 홍시다. *“서울 사는 손녀딸 생각이 나서...”* 하시며 말끝을 흐리시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께 잠시나마 어리광쟁이 손녀딸이 되어드린다

한 입 가득 홍시를 베어 문다. 하고 많은 홍시를 먹어 보았지만 이런 홍시 맛은 처음이다. 생면부지의 이방인에게 고이 길러낸 홍시를 나눠주시는 시골 할머니의 인심이 더해져 홍시는 더욱 달달하다.

이왕 폐를 끼친 김에 할머니께 옛날이야기 한 자락을 청해본다.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하며 소녀처럼 수줍어하시던 할머니는 이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으신다.

중군마을의 역사는 임진왜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엔 군대가 전군, 중군, 후군으로 나뉘었는데 중군이 주둔했던 곳이 바로 이 마을이었다는 게 할머니의 설명이다. 이렇게 소박한 풍경과 따뜻한 미소로 가득한 마을이 전쟁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니, 여간해선 믿기 힘든 일이다.

이 마을에서 나서 팔십 평생을 이곳에서만 사셨다는 할머니의 삶 속에는 마을의 역사가 깃들여 있다. 특히, 중군마을만의 기우제 풍습은 자못 흥미롭다. *“여기는 주로 부인들이 막 키를 둘러쓰고 물가에 가서 막 울고 막 그랬어. 하지를 지내고 나서도 비가 안 오면... 아이고 어메 하고 땅을 치고 울고 뭐 옷을 벗고 우는 사람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런게 하늘님이 내려다 보고 저놈들이 얼마나 딱하면 저러겄냐고 그만 비를 내려주는기라.”* 동네 여자들이 냇가에 모여 개구리처럼 울어대는 모습을 떠올려보니, 언뜻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짠해진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있다 보니 어느 새 시간은 저만치 가 있다. 할머니께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길을 재촉한다. 아쉬움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와 계신다. 내리찍는 봄볕 때문인지, 낯선 여행자의 무사를 비는 할머니의 눈길 덕분인지 돌아서는 등덜미가 따뜻해온다.

## 5. 수성대

팔등신 미인처럼 쪽쪽 뺨은 소나무 사이로 들리는 물소리를 따라 걸음을 재촉하였더니, 솔숲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계곡이 나타난다. 수성대다. 바닥이 흰히 비치도록 맑은 계곡물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친다. 저 위쪽 어딘가, 겨울의 마지막 발자국처럼 녹지 않은 눈이 남아있는 것일까, 물은 얼음처럼 차다. 등줄기로 흐르던 땀방울마저 얼려버릴 듯하다.

매화꽃이 살포시 내려앉은 바위 위에 걸터앉는다. 꽃잎 사이로 팔랑대던 나비가 코끝이라도 간지럽힐 듯 눈앞에서 일렁인다. 지금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평화로운 기운만이 감도는 이곳은 임진왜란 때 외성을 수비했던 감시초소였다고 한다. 수성대란 이름도 그 때문에 붙은 것이다. 또 어렵던 시절, 이곳에는 농사지을 땅 한 쪽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화전을 일구었기에 주변 곳곳에 마을도 있었다. 모시를 많이 심었던 모시골, 돌이 많았던 돌재마을, 백만장자가 살았다는 장재동까지. 하지만 1960년대 간첩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사건으로 나라에서 이런 마을들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마을이 있던 자리엔 몇 그루의 감나무만 남아있다.

이름만으로 남은 옛 사람의 삶의 흔적들. 괜한 애잔함이 계곡물을 따라 흘러든다. 한참을 앉아있었는데도 그냥 떠나기엔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든다. 등산화 속에 갇힌 지친 발을 꺼내어 계곡에 담가볼까, 신발 끈을 풀기 시작하는데, 평상에 앉아 있던 중년의 부부가 나를 말린다.

*“아서요. 여기 수성대 물은 계곡 아래 중군마을이랑 장항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에요.”*

이런, 아차 싶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돌레길처럼 물길 또한 마을로 마을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 것이다.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는 나의 멧쩍음에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드셨던 걸까, 부부는 삶은 계란 하나를 내밀며 말을 건넨다.

*“집에서 싸온 거예요. 이렇게 청량한 숲길을 쉬엄쉬엄 걸으며 도시락도 나눠 먹으니까 부부간에 정도 새록새록 다시 돋는다우.”*

신혼부부처럼 수줍게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는 부부의 모습이 정겹다. 앞 사람의 등을 이정표 삼아 앞 사람의 발자국을 밟으며 이 길을 걸었을 부부. 그들을 잇고 있는 인연의 실타래가 수성대에 새로운 생의 자취를 수놓고 있는 듯하다.

## 6. 배넘이재

지난 해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떨어진 나뭇잎들이 소복이 쌓인 숲길은 발 딛는 내내 폭신하다. 나뭇가지들 사이로 이른 봄 햇살이 달려 들어와 낙엽 사이사이에 스민다. 이 숲길은 장항 마을 사람들이 인월로 장을 보러 가던 길이었고 산내면 사람들이 9월쯤에 보리쌀 찜고 콩 한 되 싸들고 수성대 근처까지 가서 자두랑 바뀔 먹던 길이다.

장승을 닮은 키작은 나무 이정표가 보인다. 이정표를 보니 길 위에 서 있음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고갯길을, 숲길을, 마을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소박한 이정표들은 그렇게 내가 있는 곳과 내가 가야할 길을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들이다.

이정표에 적힌 고갯길의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어 읽어본다. '배넘이재'. 그 옛날 붓집을 이고 진 사람들이 이 길에 붙여준 이름이리라. 하지만 이 첩첩산중에 배넘이재라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먼 옛날 운봉의 동쪽지방, 그러니까 이 근방에 호수가 있어서 이 고개를 배를 타고 넘나들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리산 고리봉 아래에 있는 운봉의 주촌마을을 배마을이라고 불렀고, 고리봉에다는 배를 묶어두었다고. 하지만 정말 이 높은 땅이 호수였을까? 은근슬쩍 의심이 든다.

혹시 호수 위로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가슴 아래 볼록나온 배로 넘는 고개는 아니었을까? 이곳 배넘이재에 서면 깎아지른 경사 아래 인월 땅이 바로 내려다보인다. 옛날, 이 고갯길이 나기 전엔 사람들이 계곡을 따라 이 고개를 넘어 다녔다고 한다. 먹거리 입을 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편한 길보다는 빠른 길을 택했으리라.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배가 달을 정도로 가파른 길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풀에, 바위에 여민 옷섬이 쓸리는 줄도 모르고 바빠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의 고단한 삶이 '배넘이재'에 묻어 있다.

다시 한 번, 이정표를 들여다본다. 이번엔 작은 화살표가 길을 재촉한다. 저 너머에 남아있을 흔적들 또한 찾아보라는 것일까. 소박한 기대감에 재를 차고 넘는다.

## 7. 장항마을

우거진 나무들로 장막을 친 듯한 숲길을 벗어나니 마을이 보이기 시작한다.

마을 어귀의 거대한 당산나무를 보고있자니 입에서는 저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온다.

멀리 천왕봉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행여 마을을 덮칠까, 늘어진 당산나무 가지들은 흡사 이불을 덮어주는 엄마의 따뜻한 손처럼 마을을 감싸 안고 있다.

한결같이 마을을 굽어보고 선 나무에 대한 고마움 때문일까,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해마다 이 소나무 앞에서 당산제를 지낸다. 덕두산 줄기에서 흘러내린 산세가 노루의 목과 비슷하다고 해서 ‘노루 장’ 자에 ‘목 항’ 자를 쓴다는 장항마을. 이름에 담긴 뜻을 되새기다 보니, 내려앉은 마을이 나무 밑동에 기대 굳히 잠든 새끼 노루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무에 안긴 기분이란 어떤 것일까, 늘어진 가지 아래 서 본다. 나무가 지켜온 400년의 깊이가 느껴지는 듯하다. 키 큰 나무를 따라 시선이 하늘로 향한다. 한참 나무를 훑고 나서야 이윽고 파란 하늘이 시선에 닿는다. “이 나무 풍채도 풍채지만 귀한 나무예요. 마을마다 당산나무가 있지만, 소나무 당산은 흔치 않거든요.” 어느 새 나타난 것일까, 인상좋은 아저씨가 나무 아래에 함께 서 있다.

나무 아래벽돌집에서 실상사 귀농학교를 맡아하고 있다는 아저씨는, ‘**굳이 따지자면 교장이죠**’라고 하시며 멋쩍은 듯 웃으신다. 그리고 보니 마을 반대편, 길 아래에 따뜻한 색감의 벽돌집이 보인다. 귀농학교라, 농사일을 배우는 곳일까? 그렇다고 하기엔 집이 참 단출해 보인다.

*“보통 귀농학교 하면은 농사에 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실상사 귀농학교는 침부터 그렇게 방향을 안잡고, 현재 시대가 안고 있는 시대적 고민들이 있잖아요. 생태의 위기, 현대 문명,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를 벗어나서 대안적인 삶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게 큰 목표구요. 그리고 생태적인 삶,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큰 틀은 그렇게 짜여져 있죠.”*

귀농에서 중요한 것은 능숙한 농사기술보다는 농촌에 사는 마음가짐이라는 이야기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도, 막연한 마음에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다. 그렇긴 하지만 당장에 농사지어야 하는 사람들에게겐 기술이 더 급한 게 아닐까 슬그머니 걱정이 된다.

*“(06:16~06:52) 귀농자들이 오면은, 사람들이 모이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일자리가 생기고, 귀농자들이 스스로 그런 일을 만들어서 하고. 농촌에 가면 일자리가 없다 그런 건 잘못된 얘기죠. 산내면 같은 경우는 귀농자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최소한 백여 개 정도 있다고 봐야죠.(07:16~08:10) 일단은 대안학교 있잖아요, 실상사 작은 학교도 교사만 해도 10명이 넘으니까. 또 한생명이라는 지역 공동체를 지향하는 단체가 있어요. 도시로 말하면 시민단체죠. 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해서 어린이집, 방과 후 교사, 또 여러가지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사가 있고. 그다음 농장에서 공동체로 농사짓는 사람이 있고, 또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꾸러미 사업단이라고 해서 도농직거래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의 이야기다. 귀농하면 그저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곳에도 도시 못지 않게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존재하는구나.



“(11:49~12:21) 농촌에 오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도 요즘 귀농, 귀촌을 많이 하는데, 젊은이들도 기존의 삶의 패턴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와서, 농촌에도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든지 존재하니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저씨가 떠나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이르신다. 그 손에서 힘이 느껴진다.

## 8. 서어나무와 극상림

거듭되는 오르막과 내리막에 지쳐갈 즈음, 입이 딱 벌어지는 광경을 만난다.

살아 움직여 하늘로 뻗어나갈 것 같은 기세로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다.

길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당당한 자태가 예사롭지 않다 싶었는데 수령이 3백년도 넘는 서어나무라고 한다. 비록 껍질은 여기저기 벗겨졌지만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이 노익장을 과시하는 듯하다.

서어나무는 극상림의 숲에서만 자란다.

극상림이란 숲의 변화과정 중 마지막 단계를 뜻한다. 숲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해 가는데, 이 과정을 거쳐 그 땅의 풍토와 기후에 딱 맞아 떨어져서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안정된다.

이 때의 숲을 극상림이라 부른다.

황무지였던 땅에 이끼가 자라기 시작하면 땅은 생명을 태동시킨다. 곤충들이 동지를 틀고, 풀들이 솟아나며, 키 작은 관목들이 자리를 잡는다. 여기서 시간이 더 흐르면 햇빛을 받아야 잘 자라는 소나무 같은 침엽수들이 들어선다. 여기에 참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잎 넓은 나무들이 가세하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음지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들이 점점 무성해져서 숲을 이룰 때 비로소 극상림이 되는 것이다.

둘레길을 걷다보면 유독 소나무만 울창한 숲을 자주 만나게 된다.

여행자들에게겐 평화롭고 운치있는 풍경이지만 실은 소나무의 처절한 몸부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햇빛을 가리는 잎 넓은 나무들을 견제하기 위해 소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를 불리는 것이다.

이런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숲에만 이 서어나무가 자라난다.

그러니까 서어나무가 움을 틔운 곳은 모든 종류의 식물들이 땅의 생명력을 고루 나누어 가지고 사이좋게 살아가는 숲인 것이다.

한 가지 수종의 나무만 독점하지 않고, 끊임없는 다툼 속에 균형을 찾아가는 곳.

서어나무는 이곳에 서서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 9. 작은 학교, 작은 마을

실상사로 향하는 길을 따라 울창하게 뻗은 숲. 그 숲 너머엔 또 하나의 마을이 있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돌레길에서 또 다른 마을의 존재가 뭐 특별할까 싶지만, 이 마을은 좀 남다른 구석이 있다. 이 마을은 이름부터 독특하다. ‘작은 마을’. 스스로를 낮추어 부른 이름에서 겸손함이 느껴진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술을 버리고, 서툴더라도 서로의 힘을 합하여 살 곳, 먹을 것, 입을 것을 마련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만들어진 작은 마을.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스무 채 정도의 집들은 모두 주민들이 오랜 시간 터를 닦고 집을 짓고 길을 낸 것이라고 한다. 도시에서 형광등 하나도 갈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서툰 솜씨로 흙을 다지고 나무를 세우고 벽을 발랐을 그 집들의 모습은 어떨까? 자못 궁금해진다.

이 마을에 집을 지을 땐 반드시 지켜야 할 흥미로운 규칙이 하나 있다고 한다. 바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지리산의 여느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신의 배설물을 땅으로 보내어, 자연으로부터 얻은 만큼 돌려주고자 하는 뜻이리라.

작은 마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교육이다. 마을 안에는 마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작은 학교’가 있다. 공부보다 먼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

도시의 집에선 설거지 한 번 하지 않던 아이들이 이곳에선 손수 감자를 기르고 소똥을 치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서 지식만 머릿속에 쑤셔 넣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하여 사람들 속에서 홀로 그리고 함께 인생을 가꾸는 지혜를 터득해가는 아이들.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웃음소리로 수업은 노상 축제다.

*“이번엔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실상사 뒤쪽 밭에 썩은 비닐덮개를 벗겨내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넓은 곳이었는데, 여럿이 붙어서 하니 생각보다 쉽게 마쳤어요. 일을 마치고 참 먹으며 나누기도 했어요. 판소리 수업에서 배운 사철가 한 대목을 불렀더니 닭장 속 수탉도 목청을 길게 뽑았답니다. 순식간에 동물들의 합창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선가 읽었던 작은 학교 학생의 일기가 생각난다. 땅 위에는 분명 사람이 살고, 인간은 그 땅 위에서 무궁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종종 그 모든 곳에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지낸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부피를 줄여 나무처럼 작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작은 마을과 작은 학교는 일찍부터 깨달았기에, 그들의 깨달음은 어느새 무성한 숲이 되어 눈앞에서 있다.

## 10. 실상사

멀리 수 만평 논 한 가운데 섬처럼 솟아난 작은 숲 사이로 실상사가 얼핏얼핏 그 모습을 드러낸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의 들녘에 실상사는 신기루처럼 서 있다.

*“뭘 절이 동네 앞에, 너른 들판 논 가운데 멋없이 있을까?”*

실상사와 처음 마주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한다. 사실 실상사가 처음 저 자리에 등지를 틀 당시, 저곳은 그야말로 깊은 산골이었다. 불도를 닦기 위해 하나 둘 찾아든 사람들이 마을을 세우고 논밭을 일구다 보니 자연스레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래서일까, 실상사는 여전히 이곳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림을 가꾸어 가고 있다.

마을 주민들과 협동농장도 만들어 환경친화적인 농사법을 연구하거나, 근처에 ‘작은 학교’를 세워 청소년들에게 땅의 귀중함과 인연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기에, 주변 마을 사람들을 자신이 믿는 종교와 상관없이 실상사를 ‘우리절’이라 부른다.. 어느 사찰들에선 감히 찾아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실상사엔 ‘승천년, 속천년’이라는 말이 전해져 온다. 땅이 불가의 터로 천년을 지나면 인간의 터로 천년을 가고 그 후엔 무릉도원이 된다는 이야기다.

실상사가 신라시대에 지어졌으니 지금은 인간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리라.

굳이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유명한 사찰이 속세와의 인연에 이렇게 애를 쏟는 걸 보면 ‘승천년, 속천년’이 허튼 말은 아닌 듯싶다.

사실, 이 둘레길이 열리게 된 것도 이렇게 대중과 운명을 같이하고자 하는 실상사의 소탈한 마음 덕분이었다고 한다.

도시엔 문명의 꽃이 피면서 그 텃밭이 되고 뿌리가 되었던 농촌의 가치는 오히려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있는 현실.

그러한 오늘을 안타깝게 여긴 도법스님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어이어 만든 길이 바로 지리산 둘레길인 것이다. 이 길 위에서, 문명의 단맛에 대책없이 취해버린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기를 실상사는 기도하고 있다.

배는 부르는데 왜 마음엔 계속 허기가 찾아드는 것일까? 몸은 편한데 왜 마음은 불안한 것일까?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왜 이토록 멀어져 버린 걸까? 둘레길을 걷고 그 길에서 먹고 자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까? 실상사가 꿈꾸는 무릉도원이 열릴까?

부지런히 걷고 걸으며 계속 되뇌어본다.

## 11. 상황마을

산허리를 타고 평탄히 이어지는 폭신한 흙길 아래로 시야가 탁 트인다. 시선이 층층이 쌓인 논의 물결을 따라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린다. 모심기를 앞두고 물이 가득한 다랭이논은 색색깔 유리로 만든 모자이크 같다. 손바닥 만한 조각 논 하나하나마다에 봄날의 눈부신 햇살과 파란 하늘, 초록으로 물들어 가는 지리산 봉우리들이 모두 담겨 있다.

흘러내린 시선의 끝자락에 자리잡은 상황마을.

조각보처럼 이어진 다랭이논은 상황마을 사람들이 일구어낸 삶의 터전이다.

한 칸 한 칸 산비탈을 깎아 다지고 고랑을 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땀방울이 저 붉은 흙을 적셨을까. 논두렁에 스민 산촌 농부들의 땀냄새가 진하게 피어오르는 듯 하다.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조각땅이기에 다랭이논 농사는 일일이 사람의 손길이 가야 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마을 사람들은 어깨가 내려앉을 세라 허리가 휘어질 세라 무거운 농기구들을 매고 셀 수 없이 많이 이 땅을 오르내렸으리라.

이런 농부의 노고에 땅이 보답이라도 한 것일까. 상황마을 다랭이논은 산내면에서 가장 넓기로 소문난 저 아래 실상사 들녘보다도 많은 곡식을 출하해 내는 문전옥답이었다고 한다.

한 때 이 작은 산골마을에 천석꾼이 살았다고 하니, 다랭이논의 비옥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히 짐작이 간다.

여름이면 초록 잎사귀의 흔들림에, 가을이면 샛노란 이삭의 춤사위에 농부들의 마음도 덩달아 들썩였으리라. 하지만 젊은이들이 하나 둘 떠나버린 산촌마을, 천석꾼의 이야기는 그저 전설이 된지 오래다. 허리굽은 어르신들겐 벼차기만 한 산비탈의 논들은 점점 고사리밭이나 수풀만 무성한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다.

***“워낙 산을 좋아해서 지리산엔 수도 없이 와봤지만 이렇게 멋진 길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결을 스쳐지나던 중년의 아주머니가 인사삼아 건네는 말이다.

다랭이논 앞에선 아주머니의 얼굴은 곱게 차려입은 등산복만큼이나 밝그레하게 상기되어 있다. 들뜬 표정이 마치 사춘기 소녀같다고나 할까

잊혀져가는 다랭이논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설레임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다.

## 12. 등구재

각오는 했지만 만만치 않다. 인월과 금계마을을 잇는 50리길에서 가장 힘들다는 코스. 거북등을 닮아 이름 붙여진 등구재에 오른다.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욕심스레 발을 돌려서일까, 놀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두근거린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가자고 마음먹었건만, 노상 서두르며 살던 도시 생활의 버릇에 또 마음이 급해졌나 보다. 잠시 쉬어 가기로 한다.

멈추어 서서 숨을 돌리자 뻑뻑이 들어선 삼나무와 소나무의 청량함이 느껴진다. 해질 무렵의 노을빛과 한밤의 달빛이 좋다는 고갯길. 어둠이 찾아들기 전에 길을 내려서야 하는 이방인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등구재는 전라도 남원시의 상항마을과 경남 함양군의 창원마을을 잇는 고갯길이다. 상항마을과 창원마을, 서로 지척에 있는 두 마을이 등구재를 경계로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누어진 셈이다. 멀게만 느껴졌던 전라도와 경상도의 거리가 실은 그저 누군가가 그어놓은 하나의 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 길을 걸으면서야 비로소 실감이 된다.

이곳 지리산 사람들에게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가 중요했을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르는 이 고개는 그저 그들이 살기 위해 지나던 또 하나의 길이었을 뿐이다. 그 옛날 함양 창원마을 사람에게겐 교통이 불편한 함양읍내보다, 고개 하나만 넘으면 닿을 수 있는 전라도 인월 땅이 더 친근한 삶의 터전이었다고 한다. 쌀이나 보리, 콩을 잔뜩 짚어진 채 인월장을 향해 걸었을 함양 사람들. 어두워지기 전까지 돌아오려고 종종걸음을 쳤을 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때론 돼지나 소를 끌고 힘겹게 이 고개를 넘고 장터를 오가는 바쁜 걸음 와중에도 고갯마루에서 만나는 길손들과 세상사는 얘기도 나누었을 것이다.

고개 하나의 거리만큼 가까운 마음의 거리 덕분이었을까, 등구재는 함양과 남원 땅의 총각과 아낙들의 혼인을 성사시켜 주는 중매쟁이의 역할도 톡톡히 했었다고 한다. 오가는 발걸음만큼 많은 혼담도 오갔고, 그렇게 결혼이 성사되면 함양에서 남원으로, 또 남원의 한 마을에서 함양의 어떤 곳으로 시집가는 새색시는 꽃가마를 타고 이 길을 넘어갔다고. 낯선 곳으로 시집가는 새색시의 뒤를 쫓아, 색시를 흠모했던 동네 총각은 이 등구재 어귀까지 따라나섰을지도 모를 일이다. 멀어져 가는 꽃가마를 보며, 총각은 남몰래 눈물을 뿌렸으리라.

고갯길을 따라 만발한 참꽃을 보고 있노라니 그 옛날의 풍경이 눈앞에 살아 돌아오는 듯하다.

길과 마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그저 이 길을 걸었을 뿐이다. 오르막을 건다보면 머지않아 내리막을 만나고, 그리고 또 오르막, 또 내리막.

그러고 보니 아홉구비 등구재를 걷는 발걸음이 이젠 급할 것도 부담스러울 것도 없다 싶다.

그저 이 길 뒤에 놓여있을 또 다른 길을 걸어갈 뿐이니까.

### 13. 창원마을

파란 지붕의 집들이 푸른 하늘을 이고 서 있는 창원마을을 지난다.

기껏해야 가슴께까지 밖에 닿지 않는 나즈막한 돌담으로 이어진 마을길을 걷다 보면, 집 안 풍경까지 고스란히 눈에 보인다.

어릴 적 시골집으로 뛰어들 듯 “할머니! 저 왔어요.” 소리치면, 당장이라도 “우리 강아지!” 하시며 할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오실 것만 같다. 돌담 속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마저도 정겹게 느껴진다.

*“이 창원마을은 전에 어, 뭐꼬, 머 옛날 거석한데, 임금이 여 와서 창고를 짓다던가? 그래서 지금, 창고터가 집이 대가 있지마는, 저 밑에 동네 한 복판에 가면, 집에 애복 큰 집이 한 개 있어. 거가 창고터라. 그래 창원이라 짓데. 그렇게, 옛날 임금이 그 창고를 명령을 내리 지는 켜, 하머 전설이 대가지고 창원이라고 그랬는가봐.”*

목가적인 풍경에 취해 있는데 지나던 어르신이 자못 근엄하게 마을 역사를 알려주신다.

지금은 이렇게 평온한 산촌의 모습이지만 그 옛날의 창원마을은 타지에서 사람들과 차마들이 설 새 없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조선시대, 창고가 있어 창말이라 불렀던 창원 마을로 마천면 일대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차나 약초, 곡식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동쪽, 남쪽으로 시야가 탁 트여 지리산의 절반을 다 끼안을 듯 서 있는 마을의 품새가 그 옛날의 영화를 말해주는 듯하다. 그리고 보니 멀리 천왕봉까지도 지척에 있는 듯 보인다.

멀리 지리산의 동쪽 능선의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면 가까이엔 호두나무들이 울타리처럼 창원마을을 감싸안고 있다.

돌담 안은 물론이고, 밭 가장자리나 언덕배기, 손바닥만한 땅이라고 있는 곳엔 어김없이 호두나무가 심어져 있다.

농사지을 땅이 적은 산골마을에서 이 나무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선사한 호두들이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창원마을 사람들은 호두나무를 대학나무라 부른다.

영화로운 시간은 그 시간대로, 고단한 시절은 또 그 나름대로, 운명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웃음과 눈물을 보태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곳, 이곳은 창원마을이다.

## 14. 금계마을

이리로, 또 저리로 굽은 오솔길. 열은 초록빛으로 물든 나뭇잎 사이로 스미는 햇살이 흙과 돌과 바위 위에 금빛 그림을 그려내는 하늘길과 이어지는 그곳에 금계마을이 있다.

햇살을 따라 모여든 것일까, 한국전쟁 이전엔 몇 채의 초가집이 전부였다는 이 마을은 이제 도시 사람들이 몰려와 지은 펜션들까지 들어서 북적인다.

바벨 일 없이 한적하던 그 옛날의 어떤 때, 금계 마을은 ‘노디목’이라는 고운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 ‘노디’란 이곳 사투리로 ‘징검다리’를 뜻하는데, 탄탄히 버티고 선 ‘의탄교’가 생기기 전에 징검다리로 엄천강을 건너 다녔기에 붙은 이름이란다.

너비나 깊이가 만만치 않은 엄천강인데 그저 징검다리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았던 그 시절 사람들의 느긋함이 마을 이름 속에서 전해진다.

그런 느긋함이 역사의 질곡도 견뎌낼 수 있게 했던 것일까. 전쟁 직후 지리산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해 나라에서 인근 마을 주민 전체를 강제로 금계마을로 이주시키면서 금계마을은 난데 없이 피난지 아닌 피난지가 되었다고 한다.

갑자기 모여든 사람들로 살 곳도 먹을 것도 부족했던 시간, 농사일마저도 군인들의 감시 하에서만 가능했던 시절. 그 고단한 삶의 여정을 금계마을 사람들은 거친 강물에 하나하나 징검다리를 놓아가듯 차근히 이겨내어 왔으리라.

멀리 천왕봉이 보인다. 천왕봉에서 내려다보면 거쳐 온 모든 길과 걸어갈 모든 길이 한 눈에 보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게다. 왼쪽으로 흘러내린 중봉, 하봉과 오른쪽으론 제석봉, 연하봉, 촛대봉으로 이어지는 능선들이 어떤 길은 드러내고 어떤 길은 숨기고 있을 터이다.

저 꼭대기에 서 있든 지금처럼 산자락 어딘가에 서있든 어딘가는 늘 가려져 있으리라.

쉽없이 살아내어야 할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놓여있을 테지만, ‘노디’를 놓듯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며, 그렇게 노디목 사람들처럼 살게 되기를, 마음 속으로 빌어본다.